Issue Paper 06-14

美·中 무역 현안과 시사점

2006. 4. 14

o 오는 4월 18~21일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국가주석이 부시 대통령의 방중(05.11)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임.

o 최근 美中간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지적재산권문제, 무역장벽 완화 등 통상문제는 4월 11일 개최되었던 미중합동상무위원회(JCCT)에서 일차 합의되었고, 위안화 평가절상문제, 무역적자 문제 해소 등 양국간 통상문제가 이번 양국 정상회담(4월 20일)의 주요 안건이 될 것임.

o 이에 美中간 무역관계 및 주요 현안을 미리 정리하였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작 성	이승신 수석연구원 (6000-5092)

차 례

요약····· i

Ⅰ. 최근 美中간 통상마찰과 협의과정····· 1

Ⅱ. 美中간 주요 통상이슈 ····· 4

1. 美中무역 불균형 문제····· 4
2.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 7
3. 지적재산권 보호와 무역장벽 완화····· 10

Ⅲ. 美中무역 관계 전망과 시사점····· 12

1. 美中무역 관계 전망····· 12
2. 시사점····· 13

요약

□ 오는 4월 18~21일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국가주석이 부시 대통령의 방중(05.11)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임.

□ 美中 양국 정상회담(4/20)을 앞두고 美中간 무역긴장 관계가 다소 완화되고 있으며,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대폭의 위안화 평가절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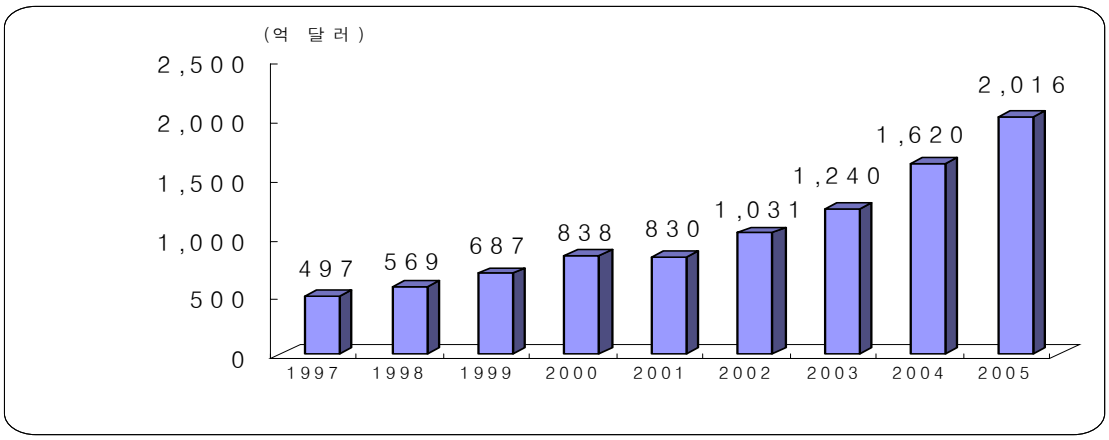
— 원자바오(溫家寶)총리, 위안화는 이미 시장조절 능력 갖추고 있어 인위적인 절상보다는, 환율 변동성을 점차 확대 하겠다고 언급(3/14)

— 중국의 최근 일일 환율 변동폭의 확대는 중국정부의 위안화 환율에 대한 유연성 확립 의지를 반영하고 있음.

□ 최근 대두되고 있는 美中간 무역마찰은 미국의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에 기인

— 미국은 대 중국 무역적자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이 위안화 가치의 저평가에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이 중국으로의 첨단제품 수출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



자료 : kita DB

□ 양국간의 무역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 상무부 구티에레즈(Gutierrez)

장관 등 미국의 고위층 인사의 중국 방문과 중국 국무원 부총리 우이(吳儀)의 미국 방문이 있었음.

— 중국의 미국 상품 대량구매(162억 달러)와 11일 미중 합동상무위원회(JCCT)에서 중국이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무역장벽 완화 등 미국의 통상요구를 대폭 수용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 되어 왔던 무역 긴장관계가 다소 완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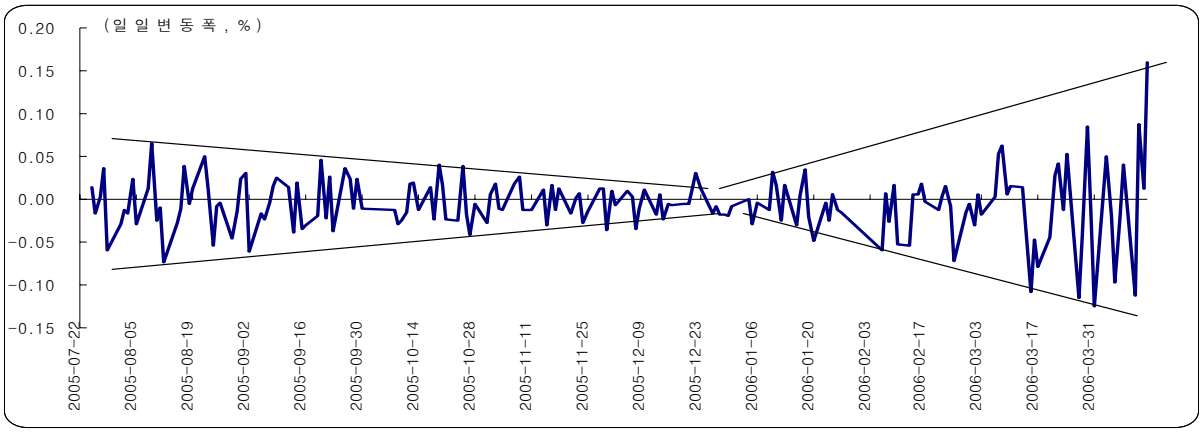
<美中 통상관련 주요 일정>

일시	주요 일정
2006년 3월 26일	-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 상무부 장관 방중
3월 21일	- 찰스 슈머(C. Shumer) 의원 방중
3월 28일	- 미국 상원, 위안화 절상 압박 새 법안 제출
4월 3일	- 중국 국무원 부총리 우이(吳儀)의 미국 방문(111개 기업, 202명의 구매사절단 인솔) - 구매사절단의 162억 달러 상당 미국상품 구매계약체결
4월 11일	- 제17차 미중 합동 상무위원회 우이 부총리 참석
4월 15일	-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연기 (미국은 3월중순 이후 꾸준한 위안화 가치하락과 후 주석의 방미 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 보고서 발표를 미룸)
4월 18일~21일	-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 - 18일 후 주석은 시애틀에 도착, 보잉사를 방문하고, 저녁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MS)회장 자택을 방문 만찬
4월 20일	- 미중 정상회담
9월 말	- 대 중국 보복관세 법안 표결예정

□ 4월 20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지속적인 위안화 환율 하락과 미국상품의 대량 구매 등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 낼 것으로 보임

— 중국 위안화의 일일 변동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금년 3월 15일 양회(전인대와 정협)이후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위안화 환율의 하락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위안화 환율의 일일 변동폭 추이>



자료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 **이번 정상회담으로 美中 무역긴장관계는 다소 완화되겠지만, 양국간 지적재산권보호 문제와 미국의 방대한 무역적자 해소 문제는 여전히 양국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을 것임.**

□ **美中무역관계가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對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반면, 향후 위안화의 점진적인 평가절상이 예상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은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한 환 리스크 대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중국의 급격한 위안화 평가 절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일 평가절상이 이루어 질 경우, 대중 수출에 있어서는 위안화 가치상승에 따른 수입수요의 확대로 인한 우리의 전반적인 對 중국 수출의 증가효과와 중국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인한 한국기업으로부터의 부품수입 감소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 외, 제3국 시장에서의 중국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전자통신·컴퓨터 등 국내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이 예상되고 있음.**

※ 현재 주요 기관별 예측하고 있는 연내 위안화의 추가 평가 절상률은 3~5%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음.

Ⅰ. 최근 美中간 통상마찰과 협의과정

□ 2006년 2월 1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포트먼(Portman)대표의 미·중 통상관계 보고서 발표이후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환율제도 개혁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 양국간 무역마찰 심화

* 미국 대표부의 美中 통상관계 보고서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이 매우 심각한 것을 지적, 2006년을 기점으로 양국간 새로운 통상관계 수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 통상문제 해결에 대해 강한 의지 표명

□ 美中간 무역분쟁의 완화를 위해 미국 의원들과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의 미국 방문이 있었으며, 4월 11일 미중 합동상무위원회에서 미국의 구티에레즈 상무장관, Portman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중국 국무원 부총리 우이(吳儀)의 회담이 있었음.

□ 美中 합동상무위원회에서의 합의로 미국 측의 불만이 다소 해소되고 있으며, 오는 4월 18일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20일)에서는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기대되고 있음.

<美中 통상관련 주요 일정>

일시	주요 일정
2006년 3월 26일	-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 상무부 장관 방중
3월 21일	- 찰스 슈머(C. Shumer) 의원 방중
3월 28일	- 미국 상원, 위안화 절상 압박 새 법안 제출
4월 3일	- 중국 국무원 부총리 우이(吳儀)의 미국 방문(111개 기업, 202명의 구매사절단 인솔) - 구매사절단의 162억 달러 상당 미국상품 구매계약체결
4월 11일	- 제17차 미중 합동 상무위원회 우이 부총리 참석
4월 15일	-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연기 (미국은 3월중순 이후 꾸준한 위안화 가치하락과 후 주석의 방미 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 보고서 발표를 미룸)
4월 18일~21일	-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 - 18일 후 주석은 시애틀에 도착, 보잉사를 방문하고, 저녁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 소프트(MS)회장 자택을 방문 만찬
4월 20일	- 미중 정상회담
9월 말	- 대 중국 보복관세 법안 표결예정

□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 상무부 장관, 미 의회의 반중 기류를 주도해온 핵심 상원의원인 찰스 슈머 의원 등 미국 고위급 인사들은 지난 3월 하순 중국을 방문한 후에 중국에 대해 우호적으로 태도가 변함.

— 이와 같은 태도의 변화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노력과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등 정부의 각 부문의 무역분쟁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일관된 태도에 기인

	방중 전	방중 후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미 상무부 장관 (3월26일 방중)	- 중국 정부가 조속한 미-중간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미 행정부는 미 의회가 대 중국 무역보복법안을 통과 시키는 것을 저지 할 수 없음	- 양국이 우호적이고 솔직한 대화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해 중국과 미국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
찰스 슈머 의원 (3월21일 방중)	- 위안화를 평가절상하지 않을 경우 27.5%의 보복관세를 부과토록 하는 법안 표결에 앞장섰었음.	- 중국이 위안화의가치를 절상할 것이라는 확인을 얻게 됐다며 3/31 예정이던 미의회의 환율보복 법안의 처리를 9월로 연기

□ 11일 美中 합동상무위원회 협상에 앞서 3일 우이 부총리가 인솔하고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구매사절단은 1회 구매로는 중국 사상 최대 규모의 162억 달러의 구매계약 체결

— 미·중간 주요 무역현안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문제에 대한 미국 내 불만을 무마하고, 20일 양국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 성의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중국 무역사절단 구매계약 체결 내용>

	내용
시카고	- 498만 톤의 콩과 2만 톤의 콩기름 구매계약
테네시 주	- 대규모 면화 구매계약 - 보잉사 항공기 구매계약(52억 달러 상당의 보잉 737기 80대 구매) - 소프트 웨어 구매 계약(17억 달러상당의 미국 정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매)
하와이	- 하와이주와 중국인의 하와이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합의문에 서명
기타	- 자동차 부품, 전자 제품, 통신상품 등의 대량 구입

□ 미중 양국간의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는 중국 측의 노력으로 다소 완화되었으며, 20일 양국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더욱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Ⅱ. 美中간 주요 통상이슈

1. 美中 무역 불균형문제

(1) 美中무역 현황

□ 美中간 무역은 2000년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이는 2001년 말 WTO에 가입하며 세계 무역시장에 전격적으로 진입한 중국 경제의 부상과 더불어 중국의 무역이 급성장한 데 기인

—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對 중국 무역적자로 무역 긴장관계 대두

<미중 무역추이>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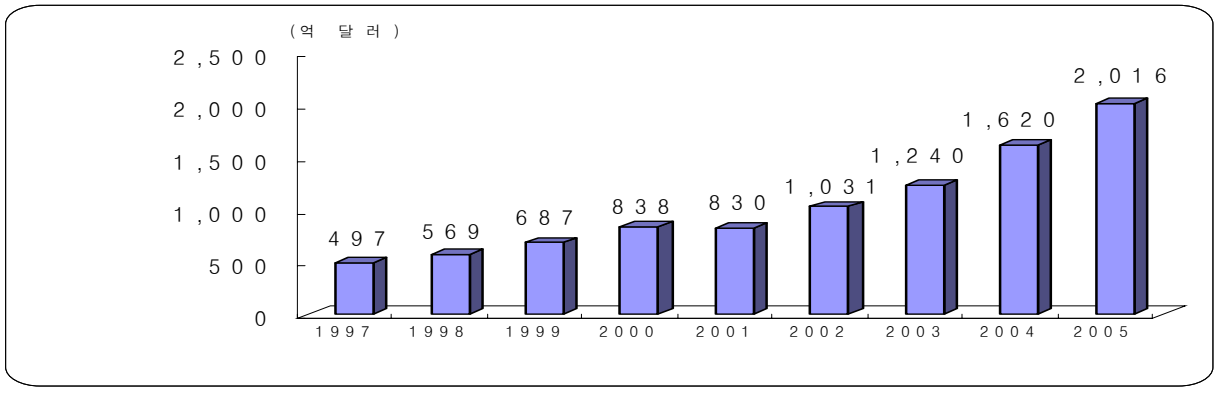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미국통계 기준	대중수출	143	131	163	192	221	284	347	418
	(증가율)	-	(-8.0)	(23.9)	(18.3)	(14.6)	(28.9)	(22.2)	(20.5)
	대중수입	712	818	1,001	1,023	1,252	1,524	1,967	2,435
	(증가율)	(-)	(14.9)	(22.3)	(2.2)	(22.4)	(21.7)	(29.1)	(23.8)
	수지	-569	-687	-838	-830	-1,031	-1,240	-1,620	**-2,016**
중국통계 기준	대미수출	376	420	521	543	700	925	1,250	1,629
	(증가율)	(-)	(11.9)	(24.1)	(4.2)	(23.8)	(32.2)	(35.1)	(30.4)
	대미수입	170	195	224	262	272	339	447	487
	(증가율)	(-)	(14.7)	(14.8)	(17.2)	(3.9)	(24.4)	(31.8)	(9.1)
	수지	206	225	298	281	427	586	803	**1,142**

자료 : kita DB

□ 미국의 對 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미국무역 통계기준으로 2005년 미국의 對 중국 무역적자는 2,016억 달러에 달함.

— 미국과 중국 무역통계간의 미국의 對 중국 무역적자는 874억 달러의 차이가 있음.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



자료 : kita DB

(2) 美中무역 불균형에 대한 양국 입장

□ 미국은 對 중국 무역적자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이 위안화 가치가 평가절하 되어있는데 있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이 중국으로의 첨단제품 수출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① 미국의 입장

□ 미국의 의회와 업계의 對 중국 무역적자를 줄이자는 강력한 요구에 직면한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적자 해결의 주요 방안으로 중국의 각종 무역장벽을 낮추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위안화 평가절상 등을 요구

— 美中간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는 대중국 무역 보복 법안 통과를 시도할 계획

— 위안화를 평가절상 하지 않을 경우 27.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법안에 표결

— 미국 상원의원들은 중국이 환율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제시

② 중국의 입장

□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 부장은 미국이 對 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미국도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혜택을 보고 있고, 무역적자의 원인이 기술유출을 우려해 첨단제품의 대 중국 수출을 막는 미국의 무역정책 때문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밝힘.

□ 친강(秦剛)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양국간 무역 불균형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강조

□ 중국 인민은행의 조우샤오촨(周小川)행장은 앞으로 2~3년 내에 무역수지의 균형을 이룰 것이라면서 만약 중국이 무역수지 균형을 이룬 후에도 미국이 계속 무역적자를 기록한다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중국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 함.

<美中간 무역불균형 마찰 내용>

미국	중국
- 美中간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는 대중국 무역 보복 법안 통과 시도할 계획	- 중국이 보유한 미국 재무부 국채 2,626억 달러(2006년 1월말 현재)를 매각할 경우 미국 금융시장 혼란
- 위안화를 평가절상 하지 않을 경우 27.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법안에 표결	- 원자바오 총리 외환보유액의 합리적 구성으로 운용효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 중국이 외환보유액 구성변화 시사*
- 미국 상원의원들은 중국이 환율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제시	- 청스웨이(成思危) 전인대(국회)상무 부위원장의 미 국채 매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점차 미국 국채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발언했으나, 인민은행은 청스웨이(成思危)부위원장의 개인의견이라 해명**

* 현재 중국은 외환보유액중 70%를 달러표시 자산으로, 20%를 유로와 영국 파운드화, 10%는 엔화로 구성

* 중국은 2006년 2월 말 외환보유액이 8,536억 달러에 달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외환보유국으로 부상

** 외환보유액이 급증하면서 위안화 상승에 따른 환차손에 대비해 달러 자산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이 미 국채 등 달러 자산매각으로 직결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임.

③ 국제여론

□ 미국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발표와 연구결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미국의 對 중국 강경 기조를 유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음.

— 클레멘스 부네캄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정책 점검국장도 3월 24일 미국 무역 적자가 중국 때문은 아니라고 지적,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는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언급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중국이 위안화를 20% 평가절상 하더라도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0.5% 감소하는데 그쳐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미국의 무역구조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

o 상기 보고서는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노동집약적인 중국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産 제품들이 중국제품을 대신해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총제적인 미국 무역적자 규모는 크게 줄지 않는다고 설명

2.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

□ 중국은 지난해 7월과 같은 인위적 절상은 없다는 입장이며, 위안화 가치의 소폭 상승만으로도 가능한 달러당 8위안대 붕괴를 용인하는 수준에서 미국의 요구에 반응 할 것으로 보임.

— 원자바오(溫家寶)총리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개최중인 3월 14일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 위안화는 현재 시장수급에 따라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공간과 능력을 완벽히 갖추고 있어 작년 7월과 같은 인위적인 절상을 할 필요가 없으며, 환율 변동성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언급

—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북경 금융포럼에서 중국은 위안화 개혁을 원하고 있으나, 중국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위안화 유연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우려

<최근 위안화 환율 변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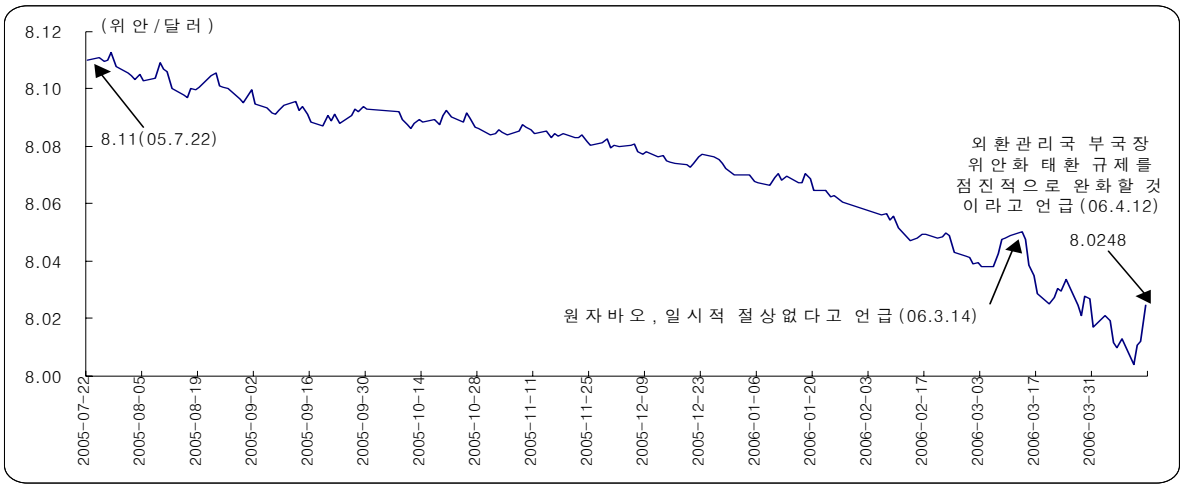
	환율 변동 내용
2005년 7월21일	- 미 달러대비 2.1% 절상(8.28에서 8.11위안으로 평가절상)
2006년 2월17일	- 달러당 8.11위안에서 8.05로 0.7% 추가절상
3월31일	- 중국 외환시장에서 기준 환율이 달러당 8.0170위안으로 처음으로 8.01위안대에 진입
4월 6일	- 위안화 환율은 전날 위안화 강세 영향으로 기준 환율이 달러당 8.0098위안으로 떨어져 처음으로 8.01위안 밑으로 내려감
4월 10일	- 중국의 위안화 가치는 달러대비 0.08% 상승하여 달러당 8.0042위안으로 2005년 7월 21일 위안화 절상이후 최저치 기록 (2005년 7월 21일 인위적 절상 대비 3.3% 절상됨)

□ 위안화 환율은 지속해서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중국 정부의 위안화 절상허용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원자바오, 인민은행 부총재 등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서 중국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 절상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위안화 평가절상 관련해 유럽 재무장관들은 중국의 점진적 위안화 절상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고 환율 절상을 위해 아시아 국가들에게 공식적인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을 선언

—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으로 인한 유로화 절상으로 최근 EU 지역의 경기회복세의 반전을 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위안화 환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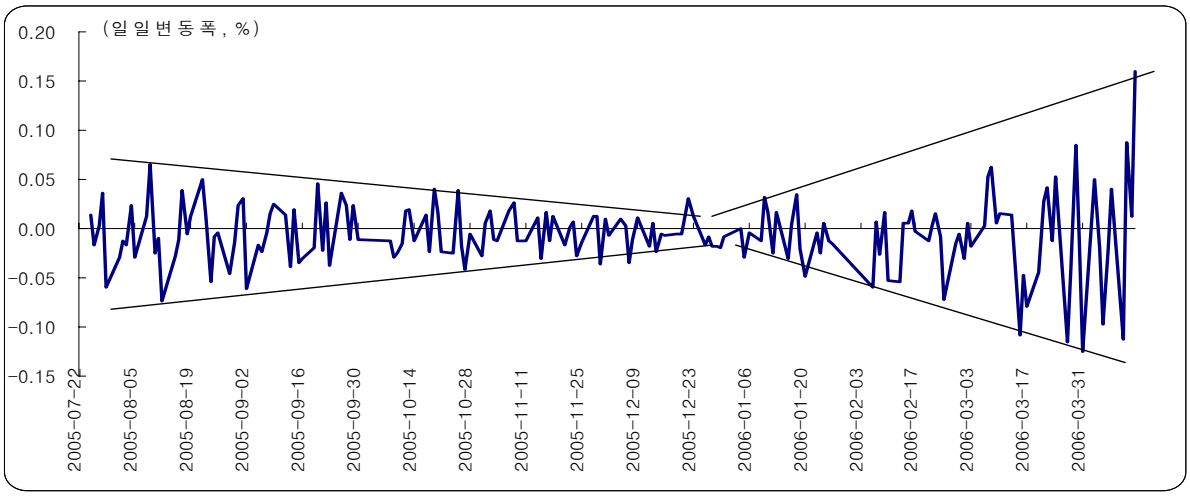


자료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 중국 위안화의 일일 변동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금년 3월 15일 양회(전인대와 정협)이후 변동폭이 크게 확대

— 위안화 환율의 자체 시장 조절 능력이 있음을 시사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 보임.

<위안화 환율의 일일 변동폭 추이>



자료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오는 18일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상징적으로 변동폭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

3. 지적재산권 보호와 무역장벽 완화

□ 중국의 미국 상품 대량 구매와 4월 11일 미중 합동상무위원회 협상에서 합의된 중국의 무역장벽완화와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 전에 미중간의 무역 긴장이 다소 완화

□ 중국은 4월 11일 미중 합동상무위원회 협상에서 2003년 12월 중단되었던 미국의 쇠고기 수입재개,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무역장벽 완화 등 미국의 통상요구를 대폭 수용

— 중국은 자동차 부품의 대량 구매로 미국, EU가 3월 31일 중국 자동차 부품 수입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 착수한 것에 대한 중국의 긴장 완화 노력 보임.

*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관세정책에 따르면, 중국에서 조립한 완성차 중 수입부품의 비율이 60% 이상일 경우 외국제 자동차로 세금 책정하기로 함.

<미중 합동 상무위원회 합의내용>

미국 측 요구사항	중국의 수용 내용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 중국내에서 판매되는 컴퓨터에 합법법적 소프트웨어 사용을 의무화, CD/DVD 불법 복제품 생산공장 폐쇄등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무역장벽 완화 (WTO 정부조달 개방 이행 등)	-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조달 시장 개방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하는 등 무역장벽 완화에 동의 - 통신서비스와 의료기계 시장의 개방확대 - 미국식품과 화장품회사에 대한 시장개방 약속 o Avon 등 미국회사의 중국시장에서의 직접판매 허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 2003년 12월 이후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선언

□ 중국의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량 구매는 불법복제 근절에 대한 중국 정부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

* 금년 3월중 개최되었던 전인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부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 보시라이(薄熙來)상무부장은 미중 고위 통상회담 맞춰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50개 도시에 지적재산권 침해 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컴퓨터 업체들이 정품 운영체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토록 조치

□ 중국의 정부조달 비중은 상당히 커서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은 앞으로 큰 시장개방을 의미

□ 중국은 무역정책의 투명성을 위한 조치와 미국의 통신서비스, 의료기계 시장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를 약속함.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롭 포트먼 USTR대표는 4월 6일 2006년도 통신시장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서 외국회사의 통신 서비스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 등을 특별 관심대상으로 지목

  · 상기 보고서에서 중국이 통신서비스 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회사에 대해 2억 4천만 달러의 자본보유를 허가 요건으로 요구해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다른 나라의 경우 자본 보유 요건은 100만 달러에 불과)

□ 11일 회담에서 우이 부총리는 미국에게 중국에 대한 첨단제품 수출 제한을 취소해 양국 무역균형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을 촉구

□ 미국은 11일 미중 미중합동상무위원회 후에 중국의 무역마찰 해소 노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위안화 평가절상문제를 20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제기하고 중국 측의 확실한 양보를 받아내려 하고 있음.

Ⅲ. 美中 무역관계 전망과 시사점

1. 美中 무역관계 전망

□ 4월 20일 美中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지속적인 위안화가치의 하락과 미국상품의 대량 구매 등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

— 중국 위안화의 일일 변동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금년 3월 15일 양회(전인대와 정협)이후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위안화 환율의 하락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양국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기대하는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해 중국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 내 수출기업의 채산성악화로 인한 생산력 저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급격한 평가 절상의 어려움을 피력할 것으로 보임.

□ 단, 최근 지속되고 있는 위안화 가치 상승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국은 위안화 환율이 이미 자체 시장 조절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미국 측을 이해시키려 노력 할 것으로 예상됨.

— 보시라이 상무장관과 우이 부총리가 중국의 무역흑자 확대의 주요 원인을 미국이 중국으로 첨단제품 수출을 억제하는 요인도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일방적으로 미국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는 않을 것임.

□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중 무역긴장관계는 다소 완화되겠지만, 양국간 지적재산권보호 문제와 미국의 방대한 무역적자 해소 문제는 여전히 양국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을 것임.

2. 시사점

□ 후진타오의 訪미을 통해 美中무역마찰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對美 수출에 대한 불안요인 또한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나,

— 美中 정상회담 이후 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 소재 우리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위안화 환율 변동 폭이 확대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중간재를 수입한 후 중국내에서 조립·가공 후 미국 등 제3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어, 위안화 절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중국 진출기업의 경우 중국 현지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환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함.

□ 또한 한국기업의 경우 대중 수출에 있어서는 위안화 가치의 절상이 지속되면서 위안화 가치상승에 따른 가격효과 및 소득효과로 우리의 對中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와 중국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이 감소하는데 따른 부정적인 효과도 동시에 예상됨.

— 2005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82%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수출의 위축은 한국의 대중국 부품, 소재 수출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韓國의 對中 輸出商品 構成 (2005년) : 일차상품 0.6%, 중간재 82%(반제품 42.0%, 부품·부분품 40.0%), 최종재 17.4%(자본재 14.0%, 소비재 3.4%)

— 반면, 위안화 절상은 중국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전자통신·컴퓨터 등 국내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제3국 시장에 대한 수출은 증대될 것임.

— 따라서 이번 후진타오 방미로 위안화 환율 절상의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그 크기는 위안화의 절상 폭에 따라 달라질 것임.

—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위안화의 대폭적인 평가 절상은 없겠지만, 美中 정상회담이후 위안화의 변동폭 확대와 절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주요 기관이 예측하고 있는 연내 위안화의 추가 평가 절상률은 3~5% 수준임.